# 아담 때문 예수님 덕분, 내 역할은 없다

## (로마서 5:12~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담 때문 예수님 덕분, 내 역할은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담 때문 예수님 덕분, 내 역할은 없다"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만 약간씩 다르기에 조금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아담 때문이고 예수님 덕분인지, 그리고 왜 내 역할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장 1~11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사실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들을 유지하는 길의 핵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소망에 이르기

까지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소망이 24시간 깔려있는 바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소망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자취조차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좀 더 넓어진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삶과 연관하여 나무가 아닌 숲을 보듯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14절 마지막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의 상태의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비극이 초래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이 비극적인 상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은 마치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땅으로 이민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와 사망의 세계 안에서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실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역할과는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세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역할을 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 할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 죄와 사망의 땅으로 옮겨져 살게 되자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원치 않았지만 죄와 사망의 땅에서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에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나 대륙횡단철도는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대로 미국에 남아 살게 되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하여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착했지만 그 후손들은 미국에서 살기 위

하여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사망이 왕노릇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간 고조할아버지라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왕노릇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간 고조할아버지인 셈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전혀 원한 적도 없고 어떤 역할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세계를 살 때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의와 생명의 세계를 살 때나 실제로 내가 사는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의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와 생명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에 의한 죄와 사망의 땅으로부터 의와 생명의 땅으로 옮겨서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매일 되풀이하는 삶의 모습을 나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면서 믿음 안에 사는 세계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더 넓은 의미에서의 숲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내가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감행한 적이 없는데 완전히 삶의 터전이 바뀌어서 다른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일시가 유지된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민자의 후손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태어나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에 이르는 은혜의 삶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무덤을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 부활하셨고 그 자리로부터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과정입니다. 나의 의식이 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부활의 자리에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의식이 도달한 천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식이 이 상황을 좇아가서 함께할 때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오중연결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만 했을 뿐인데 다섯 가지의 연결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의 연결입니다. 의식 안에서 천국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한 나의 의식은 이 땅을 떠나 부활의 자리를 거쳐 하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던 천국이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어떤 대상보다도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천국현실감이 천국과의 연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있음과의 연결입니다. 천국현실감이 만들어지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의식에서 유일한 존재감의 대상이 되십니다. 나의 의식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적인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좋음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낄 때 마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네 번째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하나님 주권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주권이 나의 육체와 연관된 모든 관계의 통로 속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와 이웃이 있고 사회와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현실이 되고 의식이 하나님의 있음에 연결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좋음에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갑처럼 끼시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연결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현실,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음, 이 세상을 향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오중연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조할아버지가 되셔서 오중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로 이민을 가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나는 예수님이 계신 오중연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 새로운 세상을 알 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던 이전의 세상이 어떤 곳이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전의 세계는 한 마디로 오중연결이 다 끊어진 세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범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오중연결이 끊어진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중연결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도록 계획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중연결이 끊어진 세계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중연결이 끊어진 삶은 앞서 말씀드렸던 오중연결의 삶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족일지라도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의식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이 현실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육체가 처한 상황만을 현실로 느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국이란 종교가 만들어낸 헛된 창작품에 불과합니다. 종교인들도 천국을 한낱 종교의 교리이자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설령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여도 언제일지 모르는 육체의 죽음 다음으로 미루어야 될 관심사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 나의 의식이 연결되어야 할 곳입니다. 천국을 현실로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천국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죽은 다음에나 갈 곳으로 관심한다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우선적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천국과의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거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르는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통과하고 반복하여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천국이 비현실이 되고 오직 육체로 만나는 대상만을 현실로 여길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있음에 대해서도 의식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세포까지도 다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의식이 끊어지자 마음도 하나

님의 좋음과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천국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면 또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도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지정의와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도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처럼 오중연결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에도 육체는 죽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졌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중연결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시청이 있고 서울역이 있듯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없도록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있습니다.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지금도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있음으로부터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음으로부터 마음이 끊어졌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이 세상으로 쉴 새 없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 주권과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순간이 없는데 나의 지정의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담 때문에 사람들은 끊어짐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오중연결이 끊어진 세계를 원해본 적도 없고 스스로 이런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 적도 없음에도 아담 때문에 오중연결이 끊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조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갔으니 그 후손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오중연결이 끊어진 사망의 세계로 이민 가서 살게 되었으니, 아담으로 태어난 나도 오중연결이 끊어진 사망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셔서 세상을 빠져나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이르는 과정 속의 예수님을 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과정속의 예수님을 의식으로 붙잡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중연결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중연결의 세계에서 태어난 자들의 삶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이민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라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아담 때문에 오중연결이 끊어진 죄와 사망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덕분에 오중연결이 이루어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중연결이 끊어진 삶은 사망이 왕 노릇하는 삶입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누구도 오중연결이 끊어진 삶을 극복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왕도 위대한 정복가도 탁월한 정치가도 유명한 종교가도 재력가도 사상가나 철학자나 성인이나 위인도 누구도 오중단절의 사망을 딛고 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였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높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좇아간 사람의 의식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위치에서 이 세상을 향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 안에서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노릇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하는 자입니다. 신하와 백성은 왕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오중연결이 이루어지는 세계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육체로 이루어진 연관성은 삶의 내용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나라와 지구까지도 육체의 연관성에서 관계하게 됩니다. 오중연결이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이 육체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가면 사장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은 사장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사장님 밑에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장님보다도 높은 사람입니다. 오중연결이 된 은혜와 생명의 나라 안

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천국에서는 의식과 마음을 채울 대상이 예수님이 대면하고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있음만을 존재감의 대상으로 포착하면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에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중연결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왕이십니다. 이 세계는 내가 고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태어나게 된 세계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사망의 세계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도 사망의 세계에서 태어나 오중단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오중연결의 세계로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중단절의 사망의 세계나 오중연결의 생명의 세계나 내가 그 세계를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일어난 타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사망의 세계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명의 세계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망의 세계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 안에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중연결의 세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 때와 똑같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것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무 한탄스러웠는데, 그 아담에게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아무 한 일 없이 오중연결의 생명의 세계 속에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것 없이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또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을 구분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주어지는 오중연결의 생명의 세계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 충분히 즐기는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